



정형외과학회소식

Newsletter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5대 회장 취임사 |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5대 이사장 취임사 | 2022년도 제65차 전문의자격 시험 시행 안내 | 전문의 자격시험 논문 접수 규정 | 제65대 집행부 중점사업 계획 및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CIOS) SCI 등재 결정 안내 | JKOA 공지사항 | 학회 회원 공지 | 지도전문의 적용 논문 접수 및 대상학회지 개정 안내 | 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 개정(안) 안내 및 모집공고 | 관련학회 및 국내학술 행사 소식 | 국제학술행사 소식, CONFERENCE 및 회원동정 | 회의실 대관 안내 및 질환별 팸플렛 제작 안내 |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및 고액 기부자 명단 | 동양고전산책 | 출간소식 | 대한정형외과학회 캠페인 안내

회장 김명구 · 이사장 이진우 · 총무이사 최윤락



11

2021 November vol.381

국·내·신·약

시작이 반,

Resyno[®] OME Inj.

1회 투여로 6개월간 지속되는 무릎관절용 히알루론산 주사제



✔ **Soft Injection**
일정하고 부드러운 주입력

✔ **Smart Lubrication**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윤활작용

✔ **Sufficient Duration**
생체 내 지속시간 개선

레시노·원 (주) (다비닐설폰으로 가공된 히알루론산 나트륨염과 히알루론산 나트륨염이 4:1 w/w 혼합된) **제품요약정보**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 프러미드사민지(2-아라리딘) 중 · 유효성분: 다비닐설폰으로 가공된 히알루론산 나트륨염과 히알루론산 나트륨염이 4:1 w/w 혼합물(병구) 2.04g (히알루론산 나트륨으로서 40mg) / 첨가제: 염료·착색 [효능·효과] 손관절의 골관절염 [용법·용량] 성인: 1회, 1관을 손관절강 내에 투여한다. 중상에 따라 투여 간격(6개월 이상)을 고려하여 적정히 투여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투여 관찰중에 감염 또는 심한 염증이 있는 환자 3) 투여부위의 피부에 감염 또는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다른 약물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관절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3. 이상반응 1) 이 약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았다. 2) 무릎관절염 환자 대상 시노비안주를 대조군으로 한 이 약의 임상시험(Y_YD302_003)에서 관절강 투여에 따른 주사부위 이상반응 발현빈도는 이 약 1차 투여 후 48.42%(46/95 명), 제 투여 후 47.27% (26/55 명)이었다. 중증 이상반응은 부종(이 약 9.47%, 이 약 제 투여 후 7.27%), 홍반 (6.32%, 이 약 제 투여 후 3.64%), 통증 (이 약 3.16%, 이 약 제 투여 후 12.73%) 순으로 보고되었다. 이 약 투여 후 7일 이상 지속된 주사부위 이상반응은 통증 5.26%, 열감 3.16%, 부종(이 약 1.05%)였으며, 모두 특별한 처치 없이 14일 이내에 소실되었고, 제 투여 후에는 통증 10.91%, 부종(이 약 5.45%), 열감 1.82%이었고, 모두 특별한 처치 없이 소실되었다. 4. 일반적 주의 1) 변형성골관절증으로 관절에 염증이 심한 경우는 이 약의 투여에 의해 국소염증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염증을 제거한 후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 약의 투여로 매우 흔하게 국소통증, 홍반 및 종창(swelling)이 나타나므로, 이 약을 관절강에 투여한 후 48시간 동안은 격렬한 운동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피하도록 하고, 국소염증을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3) 이 약은 관절강 외에 누출되면 통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절강 내에 확실하게 투여한다. 4) 이 약은 숙련된 의사가 투여해야 한다. ※ 본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주요 주의사항으로 일부 생략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Contents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5대 회장 취임사	04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5대 이사장 취임사	05
2022년도 제65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안내	06
전문의 자격시험 논문 점수 규정	08
제65대 집행부 중점사업 계획	09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CIOS) SCI 등재 결정 안내	09
JKOA 공지사항	10
학회 회원 공지	11
지도전문의 적용 논문 점수 및 대상학회지 개정 안내	12
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 개정(안) 안내	13
모집공고	13
관련학회 및 국내학술행사 소식	14
국제학술행사 소식, CONFERENCE 및 회원동정	15
회의실 대관 안내 및 질환별 팸플릿 제작 안내	16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및 고액 기부자 명단	17
동양고전산책	18
출간소식	21
대한정형외과학회 캠페인 안내	22

정형외과학회소식

2021 November vol.381 11월호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5대 회장 취임사



김명구
인하대학병원

안녕하십니까?

대한정형외과 학회 제 65차 집행부 회장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인하대 김명구입니다. 우선 제가 대한정형외과 학회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자문위원님을 비롯하여 정형외과 학회 모든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 정형외과 회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정형외과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형외과 학회를 훌륭히 잘 이끌어주신 전임 집행부 김희중 회장님, 조규정 이사장님과 권대규 총무 이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는 지난 1년간 전임 집행부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이 향후 저희 집행부가 임기 중 대한정형외과 학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생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향후 해야 할 일에 대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집행부가 계획한 임기 중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제 중 일부는 저희 임기 내에 해결이 힘들고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차기 집행부와 잘 상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임 집행부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해결이 안 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선 2021년 9월 데일리 메디라는 의학 전문지에 실린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잘나가던 정형외과 옛말, 병동 축소에 수술실도 줄어, 근래 병원 내에서 천덕꾸러기로 취급 당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정형외과 분위기를 잘 표현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 경험상 쉽지 않은 과제이며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대한 정형외과 학회의 주요 회원인 대한 정형외과 의사회 회원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회원들에게 학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의사회 회원님들도 저희에게 많은 조언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전공의 수련 교육 과정을 정밀 분석하여 좀 더 훌륭한 정형외과 전문의 배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문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학회 회원들의 일탈에 대해 단호하게 행동하였으며 이를 위해 윤리 위원회와 법제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회 회원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자체 자정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진우 이사장이 추가로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미국의 목사이며 저술가인 고 노먼 빈센트 필 박사의 말을 끝으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rite the word 'NO' backwards, it becomes 'ON'.
Every question has a key to an answer.

감사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5대 회장 김명구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5대 이사장 취임사



이진우
연세대학병원

존경하는 자문위원님, 그리고 친애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5대 집행부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연세의대 이진우입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여러 자문위원님과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지금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학회로 발전하여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장기화라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춘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다변화하였던, 전공의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용 근골격계 통합교과서를 편찬을 시작하였으며, 학회 홈페이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하여 구축하는 등 계획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학회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여 주신 제64대 집행부 김희중회장님과 조규정이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전임 집행부의 주요 사업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학회와 회원여러분이 처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새로운 도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정형외과학회 운영과 주요 사업을 체계화하고 고도화하겠습니다. 대한정형외과 학회는 65년의 전통을 이어오며, 대한민국의 학회를 주도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조금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학회의 미션과 비전을 재정립하고, 학회 로고와 모토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회의 위상에 걸맞은 외적인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둘째, 만성적인 저수가와 중증 경증 체계로 인하여 많은 회원님들께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수가 개선을 위한 장단기 추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정형외과 건강 보험 관련 백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정형외과 보험에 관련된 문제점 등을 정리하고 핵심 추진 과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형외과 전공의 교육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겠습니다.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육에 맞는 교육목표를 체계화하고 고도화하겠습니다. 지난 지도부에서 구축하여 주신 홈페이지의 교육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수련 교육 목표에 맞는 내용의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공의들이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형외과 전공의들의 기본 술기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표준화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술기센터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이 어느 수련병원에서나 표준화된 수련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9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근거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학회 회원들을 위한 진료 가이드 구축하여, 적절하고 윤리적인 환자 진료를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상 진료지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임상진료지침의 목적은 효과가 입증된 치료를 증진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지양하게 하여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분과와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하고, 정리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윤리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회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진료 영역에 대한 타 전문과목의 영역 침범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 캠페인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척추를 포함한 근골격계 분야의 진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issue가 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윤리 및 법제위원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회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회 스스로의 자정 능력과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겠습니다.

학회를 운영함에 있어 대한정형외과외과사회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상전문간호사, 깁스실 전문 인력의 업무 범위를 학회 차원에서 규정하는 TFF를 운영하여 그 역할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학회에 자그마한 발전이라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5대 이사장 이진우



2022년도 제65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안내

1. 시험 일시 및 장소

1) 1차 시험 (필기시험)

- 일시 : 2022.02.07(월), 13:00
- 장소 : 삼육대학교, 한국삼육중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서울시 노원구 소재)

2) 2차시험 (SBT시험 및 구술면접)

- 일시 : 2022.02.14(월) ~ 15(화)
- 장소 : 용산철도고등학교
- 세부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2. 학회 서류 접수 안내

가. 접수기간 : 2021. 11. 10(수요일) 10:00 ~ 2021. 11. 23(화요일) 17:00

나. 접수방법

- 대한의학회 전문의 자격시험 홈페이지(exam.kam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다. 응시 서류 제출 절차

- ※ 대한의학회 전문의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구매 완료 후 응시자 정보와 학회 요청서류를 모두 제출
- ① 대한의학회 전문의자격시험 홈페이지 접속 (exam.kams.or.kr)
- ② 로그인 후 응시원서 구매 완료
- ③ 응시자 정보 입력
- ④ 학회 요청서류(논문, 수술기록지,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자료) 파일 업로드
- ⑤ 접수 기간 내 응시자 정보 및 학회 요청서류 모두 입력 완료 후 '제출'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접수 완료 필수
- ⑥ 학회 제출 서류 심사 후 응시자격에 대한 결과는 대한의학회 전문의자격 시험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마이페이지에서 승인 여부 확인 가능
 - 응시자격 기준 충족 시 '접수완료'
 - (접수 마감 후 5일 이내로 응시자격 심사 완료 후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응시자격 기준 심사중인 경우 '접수중'
 - 응시자격 기준 검토 시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미비 사항 제출 요청'
 -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응시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하오니 응시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정보 입력 오류로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학회 제출서류 안내

- ※ 대한의학회 전문의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제출서류는 응시자격 심사를 위함이며 2차시험(구술면접)시 출력물로 지참해 주십시오. 업로드한 자료와 출력물로 지참하는 자료는 동일해야 하며 상이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반드시 사실을 기록한 본인의 기록물이어야 합니다.
- ※ 2차시험인 구술면접 시행 시 지참해야 하는 자료는 아래 1)~3)번 자료이며 각각 제본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수술기록지, 온라인 전공의 기록부 각각 제본)

1) 논문 (제본)

: 논문은 발간 당시를 기준으로 저자 중 모든 전공의 성명 밑에 under line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Accepted된 상태의 논문은 게재예정 증명서를 해당 논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재예정 증명서에는 저널명, 논문제목, 저자명, 저자 소속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게재예정 증명서가 없는 해외 저널의 경우 채택 메일과 해당 논문, 저널에 논문을 접수한 화면(논문제목, 전체 저자, 저자 소속 등을 확인하기 위함) 캡처 파일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문의사항은 학회(Tel. 02-780-2765 / Email. ortho2@koa.or.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술기록지 (제본)

: 4년차(2021. 3. 1 ~ 현재까지) 수련 기간동안 수술한 기록지 100례 이상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록지 맨 앞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이 목차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환자성명	성별	연령	병명	수술명
----	------	----	----	----	-----

※ 성명 등의 환자 개인정보는 마스킹(예시. 홍**, *길등) 후 제출하십시오.

3) 온라인 전공의 기록부 (제본)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전공의 기록부 로그인 후 첫 화면의 '정형외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참고하시어 현재까지 수련한 모든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시고 반드시 수련책임지도전문의의 최종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승인 처리는 접수 마감 후 5일 이내로 완료할 예정이며 출력 및 제본은 학회 승인이 완료된 후에 진행하시고 인쇄는 전공의기록부 로그인 후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4) 대한정형외과학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한 증빙자료

: 학술대회 프로그램북, 초록집, 브로슈어 등에서 발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학술대회명, 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겹표지도 함께 제출하시고 포스터의 경우 반드시 발표자라고 명시된 1인만 발표자로 인정되니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전문의시험 응시료(특별회비) : 600,000원 (현금영수증 요청은 ortho5@koa.or.kr로 성함, 의사면허번호,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학회회비 : 평생회비	500,000원
정회원가입비	300,000원
미납회비(준회원 연회비) 연	20,000원(학회에서 확인 후 안내 예정)

- ☞ 응시료 및 회비 납부는 현금납부 또는 무통장 입금을 요청드립니다. 무통장 입금 시 응시자 본인 성함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계좌 : KB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대한정형외과학회)
- ※ 납부기간 : 2021년 11월 10일(수요일) ~ 2021년 11월 23일(화요일)까지
- ※ 불합격 시 평생회비와 정회원 가입비는 환불해 드립니다.

3. 대한의학회 홈페이지 응시원서 구매는 1차시험 응시료, 학회에 납부하는 응시료는 2차시험 응시료임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학회에 납부하는 응시료와 회비는 가급적 함께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안내사항 외 모든 사항은 대한의학회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해 주십시오.

전문의 자격시험 논문 점수 규정

규 정

-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 요건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서류 접수 마감일시 이전까지**의 논문 점수가 최소 3점 이상이 되어야하며, **1편 이상은 대한정형외과학회지(JKOA)나 대한정형외과학회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SCI(E), SCOPUS 저널에 출간 또는 채택(accepted) 되어야 한다.**
단, 해당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응시자가 **속한 병원** 혹은 **속한 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작성된 논문이어야 한다. 여러 병원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적절한 심사를 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같은 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공동 연구는 제외)
-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JKOA)와 대한정형외과학회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SCI(E), SCOPUS 저널에 등재된 정형외과 관련 학술지는 3점이며 출간되거나 채택되면(accepted) 인정한다.
※ 정형외과 관련 학술지가 아닌 SCI(E), SCOPUS 등재 학술지는 제1저자 또는 통신저자가 **응시 전공의와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소속이고, 정형외과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에 한해 3점 인정, 그 외 논문은 사안에 따라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함.
- 2) 분과학회지 및 관련학회지는 학술지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점수 인정한다.
 - ① 현재 SCOPUS 등재지는 3점: Asian Spine Journal, JBM(구. 골대사학회지),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구. 슬관절학회지), Hip and pelvis (구. 고관절학회지), The Journal of Hand Surgery (Asian-Pacific Volume)
 - ②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는 2점: Hip and pelvis (구. 고관절 학회지), 골절, 스포츠의학, 척추, 족부족관절, 견주관절, 류마티스, 골다공증,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 (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
 - ③ 기타 관련 및 분과 학회지는 1점: 정형외과스포츠의학, 척추신기술학회, AOSM(대한관절경-대정스포츠의학회 통합영문학회지) 학회지이다.(기타 관련 및 분과 학회지가 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가 될 경우 2점 인정)
- 3) 증례보고(Case report) 및 종설(Review article)은 대한정형외과학회지(JKOA)와 대한정형외과학회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SCI(E), SCOPUS에 발표된 경우는 1점을 인정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는 0.5점을 인정, 그 외의 분과 및 관련학회지는 인정하지 않음.
- 4) 상기 점수는 필요에 따라서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회에서 분과 및 관련학회지의 질을 재평가하여 조정한다.
2. 대한정형외과학회 또는 관련학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 1편 이상을 발표하여야 한다. (포스터는 대표 저자여야함)
3.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항과 2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4. 모든 논문에서 전공의 3인까지만 인정하고 배정된 점수를 전공의 수로 나눈 점수를 인정한다. (이 기준은 2024년도 전문의 자격시험까지 적용하고 2025년도 전문의 자격시험부터는 모든 논문에서 전공의 2인까지만 인정하고 배정된 점수를 전공의 수로 나눈 점수를 인정한다.)

비 고

- 상기의 수정 보완된 사항은 2021년도부터 시행되는 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 ※ 전문의 자격시험 요건 중 논문은 대한정형외과학회지(JKOA), CIOS, SCI(E) 학술지는 채택(accepted)되거나 E-pub된 경우 발간(Printed publication)되지 않더라도 인정하고, 그 이외의 학술지는 발간된 경우만 인정한다.
 - ※ 대한정형외과학회지(JKOA)와 통합된 골관절종양, 골연부조직이식, 정형외과초음파, 정형외과컴퓨터수술, 정형외과통증, 정형외과연구, 관절경, 운동계절기세포재생학회지는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동일한 논문 점수로 인정한다. 통합 전 발간된 학회지의 논문 점수는 다음과 같다.
 - [통합 전 발간된 학회지 원저 논문 점수] 골관절종양 2점, 골연부조직이식 1점, 정형외과초음파 1점, 정형외과통증학회지 1점, 정형외과연구학회지 1점
 - ※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의 경우 통합 전 수부외과학회지와 미세수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 [통합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수부외과학회지: 원저 2점, 증례보고&종설 0.5점, 미세수술학회지: 원저 1점, 증례보고&종설 0점
 - ※ JBM(구. 골대사학회지)의 경우 2019년 SCOPUS 등재되어 2019년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 2점, 증례보고&종설 0.5점
 - ※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슬관절학회지)의 경우 2020년 5월에 등재되어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 2점, 증례보고&종설 0.5점
 - ※ The Journal of Hand Surgery(Asian-Pacific Volume)의 경우 2018년 SCOPUS 등재되어 2018년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 1점, 증례보고&종설 0점
 - ※ Hip and pelvis(구, 고관절학회지)의 경우 2021년 2월에 SCOPUS 등재되어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 2점, 증례보고&종설 0.5점

2022년도 제65차 전문의 자격시험 참고 문헌

- | | |
|--|--|
| ① Gray's Anatomy (international student edition) | ④ Instructional Course Lecture (2019, 2020, 2021년에 발간된 대한정형외과학회 연수강좌 및 AAOS ICL) |
| ② Campbell's Operative Orthopedics (13판, 2016년 11월 출판) | ⑤ 정형외과학(교과서, 8판, 2020년) |
| ③ Rockwood & Green's Fracture (9판, 2019년) | ⑥ 대한정형외과학회지, CIOS (2020, 2021년도 발간) |

제65대 집행부 중점사업 계획

- 학회 운영과 주요 사업의 체계화 및 고도화 - 전문 컨설팅 업체 활용
 - 1) 대외 환경분석: 주요 환경변화 요인(정책적, 제도적, 기술적 관점) 및 주요 이슈
 - 2) 국내외 유사조직 벤치마킹
 - 국내외 유사학회의 조직운영, 사업운영 관점의 우수사례(성공 or 실패), 시사점 등 도출
 - 3) 학회 역량분석, 조직 정비 및 효율적인 업무 분장
 - 사업/인력 운영 현황 파악, 업무프로세스 진단, 조직/인사 진단, 주요 이슈 및 개선점 분석
 -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등)
 - 4) SWOT 분석 및 전략 대안 및 방향 수립
 - 5) 사업분석 및 발굴: 현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운영, 재정관점 등)
 - 미래 사업발굴(지속가능 사업, Cash flow 등 감안) : 학회 차원의 전공의 교육, 수련시스템 구축, 산학협력 연구 및 비즈니스 교류 플랫폼 구축
 - 기존/미래 사업재수립 : 근골격계 진료 영역 정상화를 위한 각종 사업 전개
 - 6) 비전(학회의 미래 지향 가치), 미션 재정립, CI 재정비
 - 7) 기타 정책제언(조직 및 사업운영 관점)
- 정형외과 수가 개선 장단기 추진 전략 수립 - 정형외과 보험자료집 제작
- 전공의 교육의 체계화 및 표준화
- 회원 진료 가이드 마련 - 임상진료지침특별위원회 운영
- 학회 홍보 기능 강화 - 전문 컨설팅 대행사 활용
- 학회 홈페이지 개편 완료
- 각종위원회 회의 방식 Hybrid 시스템 구축 - 학회 회의실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CIOS) SCI 등재 결정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 여러분께

우리 학회 공식 영문학회지인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CIOS)가 드디어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Orthopedics category)에 등재 결정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CIOS는 2009년 창간되어 1년에 네 번 발간되어 왔으며, 저널 평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으로 SCI에 등재되기 위하여 학회에서는 저명 학자의 편집위원 위촉, 우수 논문 유치, 종설 투고 확대 등 많은 노력을 창간 이래 줄곧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용 횟수가 높은 우수 논문들을 게재하여 주신 우리 회원님들의 값진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좋은 결과는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그동안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SCI-E는 CIOS의 2019년 11권 1호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회와 편집진은 앞으로 CIOS를 더욱 훌륭한 국제적인 저널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JKOA 공지사항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는 현재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입니다.
2. 국문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투고를 받지 않습니다. 영문논문은 가급적 CIOS에 투고 부탁드립니다.
3. 국문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허가를 받은 심사완료된 논문은 저자변경이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4. 연구 윤리의 원칙에 저자됨은 실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기여해야 하나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들 중에 실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기여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저자들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저자 수에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종례 보고에는 4명 이하(전공의 1인) 원저에는 6명 이하(전공의 2인까지) 종설에는 3인 이하 제한된 수 이상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편집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들 등록된 저자 이외에 기여한 사람은 Acknowledgement에 넣습니다. 단, 다기관 공동 연구(Multi-center study) 등 상기 규정된 저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논문에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5. 원고 투고 시 저자고유식별 번호(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입력은 필수사항입니다.
6.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투고한 동일한 내용의 연구물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 학회지에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 윤리규정 제3항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의 위반이므로 이런 경우에 징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7. 신속심사제도에 관하여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 심사는 정규 심사 과정이 기본이나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 또는 지도전문의 자격기준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별하여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심사제도는 선별적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며 “가급적 채택”이 아닙니다.

총 60일 이내의 심사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수정 후 재투고’ 판정 후에 재투고 기간이 늦어지면 60일 이내의 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재투고 판정시 투고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전문의 자격시험 논문 기준의 사유로 신속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매년 8월 말까지만 신청을 접수 받고 진행을 하며 수정 후 재투고가 늦어져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정된 기한을 지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유일 경우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꼭 양지하시고 가급적 정규 심사과정을 통하여 학회지 논문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속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정형외과학회 사무국에 전송(팩스 : 02-780-2767 또는 이메일 : ortho@koa.or.kr)하고 위원장의 타당성 승인 후 별도의 심사로 30만원을 학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속심사 시행이 심사위원의 논문 게재 허가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대한정형외과학회)

Editorial

대한정형외과학회지(JKOA)는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역사를 함께 한 대표 journal입니다. 아쉽게도 최근에는 기관별로 SCI(E)급 journal만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다 보니 대한정형외과 학회지(JKOA)의 위상이 이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본 학회지는 정형외과의 최신 지견을 접할 수 있는 믿음직한 한글 잡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독자에게 보다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고 구독률과 인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3호부터는 Honorable Review Articles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Review Article은 여러 문헌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자의 경험에서 나온 가치 있는 메시지가 담겨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적합한 종설 게재를 위하여 대한정형외과학회지(JKOA)의 심사위원과 편집위원들로부터 각 분야에서 임상과 연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저자와 주제를 추천받았습니다. 경험을 중시하여 학회 회원 중 55세 이상의 Senior 선생님들로 연령을 제한하여 추천받았으며 각 분과별로 다수의 추천을 받으신 한두 분께 종설을 부탁드렸습니다. 56권 5호 수부 분야에서 “수지 골절-탈구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강호정 교수님의 종설과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손과 손목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대하여 한양대학교 이광현 교수님의 종설을 게재하였습니다. 본 종설이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 여러분의 임상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바쁜 시간을 쪼개어 귀한 메시지를 정리하여 주신 강호정 교수님과 이광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Session을 통하여 유익한 종설을 게재할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대한정형외과학회지 편집위원회

학회 회원 공지

1. 의료취약계층 척추질환 수술비 지원사업 현황 보고(2021.11.16 기준)

모금총액 138,800,000원		개인회원(21), 단체(4), 기업(3), 비회원(1)			
신청	93건	지원완료	50건	지원대기	17건
심사대기	2건	탈락 또는 철회		23건	
모금액 전액 소진시 사업 종료					

2. 학회 홈페이지 회원정보 업데이트 요청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회원님들께 중요 안내사항 등을 문자, 이메일 및 수령을 원하시는 주소로 발송하고 있으나 누락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홈페이지(www.koa.or.kr)에서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를 수정 요청드리오니 로그인하시어 개인정보수정에서 회원님의 가장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바랍니다.

* 중요 업데이트 회원 정보

- 현재 소속병원
- 우편물 수신처
- 주소
- 이메일 주소
- 휴대전화번호

* 회원정보 수정은 홈페이지(www.koa.or.kr) 로그인 후 상단의 “MY PAGE”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매월 소식지에 안내되는 회원 동정란은 회원들의 경조사는 물론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소식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소식 공지를 원하시는 경우 학회 이메일 ortho@koa.or.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본 학회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중이오니 관련 개편안 의견이 있는 회원은 ortho@ko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학회에 메일로 문의할 시 반드시 발신인의 기본 정보(성함,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학회 정기 간행물 발송 현황 안내

종류	발행 주기	발송 구분	우편 구독 비용
소식지	매월 말일	1)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2) 만65세 이상 회원은 우편 및 이메일 발송	유료 구독 신청 불가
국문학회지 (JKOA)	연 6회 격간 (2, 4, 6, 8, 10, 12월)	1)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2) 만65세 이상 회원은 우편 및 이메일 발송 3) 유료 구독 회원 우편발송	연 48,000원
영문학회지 (CIOS)	연 4회 격간 (3, 6, 9, 12월)	1)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2) 유료 구독 회원 및 자문위원 우편, 이메일 발송	연 32,000원

* 유료회원은 우편발송 대상이 아닌 회원 중 우편료를 선납해주신 회원입니다.

7. 학회 사무국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 안내

담당 업무	담당자	이메일주소	내선번호
사무국 총괄	신수인 국장	ortho@koa.or.kr	6
전문의 시험, 수련 및 회의	김민재 과장	ortho2@koa.or.kr	5
학회지 및 회계	이지연 대리	ortho5@koa.or.kr	3
전공의 기록부, 파견 및 소식지	장유진 주임	ortho3@koa.or.kr	4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사 의료자문	김주리 실장	ortho4@koa.or.kr	7
회원정보관리, 평점, 홈페이지, 학술행사	박지영 사원	ortho1@koa.or.kr	1, 2



학회 지도전문의 자격 기준 중 지도전문의 적용 논문 점수 및 대상학회지 개정 안내

• 지도전문의 논문 점수 대상 학회지 및 배점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통합된 학회지 포함) 및 정형외과영문학회지(CIOS), SCI(E), Scopus 논문 중 원저와 증설은 2점, 증례보고는 1점을 부여하고, 관련학회 학술지는 학술지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점수를 인정한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의 원저와 증설은 1점, 증례보고는 0.5점을 부여하고, 해당 학술지는 골절, 스포츠의학, 척추, 족부족관절,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 견주관절, 류마티스, Osteoporosis and sarcopenia(구, 골다공증학회지) 학회지이다.

2) 기타 관련 및 분과학회지의 원저와 증설은 0.5점, 증례보고는 0.25점을 부여하며, 해당 학술지는 척추신기술학회, AOSM(대한관절경-대정스포츠의학회 통합영문학회지) 학회지이다.
(기타 관련 및 분과학회지가 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가 될 경우 1점을 인정한다.)

3) Scopus에 등재된 저널은 SCI(E)와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하다.
Scopus 등재된 관련학회 학술지: Asian Spine journal, JBM(구, 골대사학회지),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 (구, 슬관절학회지), Hip and pelvis(구, 고관절학회지), The Journal of Hand Surgery(Asian-Pacific Volume)

4) SCI(E) 또는 Scopus에 등재되지 않는 해외학회지의 원저와 증설은 0.5점, 증례보고는 0.25점을 부여한다.

5) 정원책정 지도전문의는 당해 연도 1점 또는 직전 4년에 3점 이상의 논문 점수가 되어야 인정된다.

- (1) 직전 4년 논문 점수 산출시 이미 사용하였던 논문은 중복되게 사용하지 못한다.
- (2) 당해 연도란 전년도 3월 1일 ~ 해당 연도 2월 말까지를 말한다.
 - 2021년도 당해연도: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 2021년도 직전 4년: 2017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2.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및 대한정형외과 영문 학회지(CIOS), SCI(E)는 당해 연도 기간 내에 채택(accepted) 되거나 E-pub된 경우, 논문으로 인정한다.

3. 정형외과와 관련된 전문 서적 및 기타 학회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4. 제1저자 또는 통신저자는 전체 점수를 주고, 나머지 저자는 주어진 배점을 논문 작성자 수로 나눈 점수를 부여한다.

※ 통합 학회지의 논문 점수 인정에 관한 건

[JKOA와 통합 전 발간] 골관절종양학회지 1점
골연부조직이식학회지, 정형외과초음파학회지, 정형통증학회지, 정형외과연구학회지 0.5점

[JKOA와 통합 후 발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동일한 점수로 인정

※ 통합학회 : 대한골관절종양학회,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대한정형통증학회, 대한정형외과 컴퓨터수술학회,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대한운동계측기세포재생의학회

※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의 경우 통합 전 수부외과학회지와 미세수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통합 전 발간된 논문 점수] - 대한수부외과학회지: 원저&증설 1점, 증례보고 0.5점
- 대한미세수술학회지: 원저&증설 0.5점, 증례보고 0.25점

※ SCOPUS 등재 시점에 따른 점수 안내

- JBM(구, 골대사학회지)의 경우 2019년 SCOPUS 등재되어 2019년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증설 1점, 증례보고 0.5점

- The Journal of Hand Surgery(Asian-Pacific Volume)의 경우 2018년 SCOPUS 등재되어 2018년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증설 0.5점, 증례보고 0점

-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의 경우 2020년 5월에 등재되어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증설 1점, 증례보고 0.5점

- Hip and pelvis(구, 고관절학회지)의 경우 2021년 2월에 등재되어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증설 1점, 증례보고 0.5점



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 개정(안) 안내

제62대 집행부 제3, 4차 수련교육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여 제62대 집행부 제2차 이사회에서 인준한 '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도 전공의 1년차 정원 책정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도 5월에 제출하는 2024년도 1년차 전공의 모집계획서는 개정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개정안을 잘 숙지하시어 해당년도에 제출하는 자료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재	개정(안) 2024년도 전공의 1년차 정원 책정 시
정원책정 지도전문의가 5인 이하일 경우 N-3를 적용하고, 정원책정 지도전문의가 6인 이상일 경우 N/2를 적용	정원책정 지도전문의가 8인 미만일 경우 N-4를 적용하고, 정원책정 지도전문의가 8인 이상일 경우 N/2를 적용

• 적용 시기 : 2024년도 1년차 전공의 모집 계획서 제출 시 (2023년 5월 제출 예정)



모집공고

1. 서울대보라매병원 임상강사 모집

- 모집인원 : 1명, 이승준 교수 담당
- 문의 : Tel. 02-870-2318, E-mail. sjlee8119@gmail.com

2. 서울아산병원 교수 초빙

- 모집인원 : 견주관절분과 1명
- 문의 : 의국 Tel. 02-3010-3530

3.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전임의 모집

- 모집인원 : 견주관절, 슬관절&고관절, 수부 0명
- 문의 : Tel. 010-9470-2863, E-mail. sagerens@naver.com

4. 서울성모병원 임상강사 모집

- 모집인원 : 9명
- 문의 : Tel. 02-2258-5528

5. 일산백병원 전임의 모집

- 모집인원 : 척추 0명
- 문의 : Tel. 010-8723-8434, E-mail. oskim@paik.ac.kr

6. 울산대학교병원 전임의 모집

- 모집인원 : 견주관절 0명
- 문의 : Tel. 010-3561-6017, E-mail. shkoshko@hanmail.net

7. 서울성모병원 전임의 모집

- 모집인원 : 수부,종양 1명
- 문의 : Tel. 010-4784-7678, E-mail. tumorshin@gmail.com

8. 일산백병원 전임의 모집

- 모집인원 : 고관절 및 외상, 족부, 척추, 무릎 각 1명
- 문의 : Tel. 010-4615-2726, E-mail. urthe14me@naver.com

9. 중앙대병원 전임의 모집

- 모집인원 : 슬관절, 고관절, 척추, 상지 및 견관절, 족부 각 1명
- 문의 : Tel. 02-6299-3143, E-mail. ksjs5739@naver.com

10. 가천대길병원 전임의 모집

- 모집인원 : 견주관절 및 스포츠의학 0명
- 문의 : Tel. 032-460-3384, E-mail. jjangumom52@hanmail.net

관련학회 및 국내학술행사 소식

1. 대한골대사학회 제33차 추계학술대회

- 일정 : 2021년 11월 5일(금)~6일(토),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온라인 동시 진행)
- 문의 : Tel. 02-3473-2230, E-mail, ksbmr@ksbmr.org

2. 대한수부외과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 일정 : 학술대회 - 2021년 11월 5일(금)~6일(토), 연수강좌 - 2021년 11월 6일(토)~7일(일)
- 문의 : 운영사무국 Tel. 02-2038-7988, E-mail, gaonpco@gaonpco.com

3. 대한슬관절학회 추계심포지엄

- 일정 : 2021년 11월 6일(토), 그랜드하얏트 인천 그랜드 볼룸
- 문의 : Tel. 02-2148-9799, E-mail, kks@koreaknee.or.kr

4. 제11회 대한관절경학회 연수강좌

- 일정 : 2021년 11월 7일(일), 세종대학교 대양시홀
- 문의 : Tel. 02-440-7497, E-mail, korarthro@naver.com

5.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연수강좌

- 일정 : 2021년 11월 13일(토)~14일(일)
- 문의 : Tel. 031-726-1985, E-mail, kpos.orthopaedic@gmail.com

6.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제16차 추계학술대회

- 일정 : 2021년 11월 21일(일), 세종대학교 대양시홀
- 문의 : Tel. 02-970-8036, E-mail, ossonokorea@naver.com

7. 제7차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연수강좌

- 일정 : 2021년 11월 28일(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공학관
- 문의 : Tel. 062-220-3147, E-mail, office@kossm.or.kr

8. 세브란스관절경연구회 32nd Severance Arthroscopy Symposium : Shoulder & Elbow

- 일정 : 2021년 12월 5일(일), 온라인 진행
- 문의 : E-mail, sas1992@hanmail.net

9.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 일정 : 2021년 12월 11일(토), 고대안암병원 유광사홀
- 문의 : 학회 Tel. 02-831-3413, E-mail, korspine@hanmail.net

10.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제18회 정형외과 기초과학 연수강좌

- 일정 : 2021년 12월 12일(일), 온라인 진행
- 문의 : 학회 Tel. 02-2258-2838, E-mail, Kors2838@gmail.com

국제학술행사 소식

1. 대한골다공증학회 International Congress of Osteoporosis 2021 (ICO 2021)

- 일정 : 2021년 11월 5일(금)~7일(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
- 문의 : Tel. 070-8676-8189, E-mail, secretariat@ico2020seoul.or.kr

2.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3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일정 : 2021년 11월 19일(금)~20일(토),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E5~E7)
- 문의 : 사무국 Tel.062-220-3147, E-mail, office@kossm.or.kr

CONFERENCE

1. Intercollegiate X-ray Conference 일정

년 도	개최 월일	병 원 명	년 도	개최 월일	병 원 명
2021	12월 9일	삼성서울병원	2022	6월 9일	중앙대학교병원
2022	3월 10일	서울대보라매병원		7월 14일	서울백병원

(매월 둘째 목요일 저녁 6:00) (2021년 1월, 2월, 4월, 8월, 10월, 2022년 1월, 2월, 4월, 5월 없음)

- 연락처 : Tel. 02-2072-2367~2368 / E-mail, drjacobkim@gmail.com

2. Interhospital Orthopaedic Conference (매월 첫째 수요일 18:30) (3, 5, 7, 9, 11월 매년 5회 개최)

년 도	날 짜	횟 수	병 원 명
2022년	3월 2일	제147차	세란병원
	5월 4일	제148차	아주대학교병원
	7월 6일	제149차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9월 7일	제150차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11월 2일	제151차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사정상 변경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02-2228-2180~2181 / E-mail, os@yuhs.ac

회원동정

☞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구경희 회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現학회자산관리위원회) 빙모상
- 이재훈 회원 (강동경희대병원, 現 의료자문심사특별위원) 빙부상

☞ 축하합니다

- 김종필, 유준영 회원 나은필병원 개원(충남 천안시 소재)

회의실 대관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대관 안내 드립니다. 회의실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아래 참고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서를 학회로 송부하여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관 불가일 안내 (■은 예약 완료일입니다.)

❖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 2022년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1	2	3	4							1
7	8	9	10	11	12	13	5	6	7	8	9	10	11	2	3	4	5	6	7	8
14	15	16	17	18	19	20	12	13	14	15	16	17	18	9	10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26	27	19	20	21	22	23	24	2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6	27	28	29	30	31		23	24	25	26	27	28	29
														30	31					

질환별 팸플릿 제작 안내



팸플릿 제작 중단 및 할인 판매 안내

-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질환별 팸플릿 총 29종을 제작하여 회원 여러분께 원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원가 물가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00부당 20,000원(면세가)으로 단가가 인상되오니 회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팸플릿 구매 신청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소식지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학회 이메일(ortho@koa.or.kr) 또는 팩스(02-780-276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구매 수량은 종류별 100부 단위로 판매합니다.
- 입금 계좌 정보 : KB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 * 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팸플릿은 50% 할인하여 구입 가능합니다. (테티골두골괴사증, 스포츠 손상, 수부관절염, 청소년기척추측만증, 성장클리닉, 힘다리 교정, 근골격계초음파)
- ※ 질환별 팸플릿은 현재 제작된 재고 소진시 판매중단 예정입니다. 팸플릿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 대한정형외과학회 건축기금 모금 관련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회원들의 교육과 연구활동 증진을 위한 회관 건축을 위해 2016년도부터 건축기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모금된 건축기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2018년 2월 13일 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특별회비 및 비정액 기부금에 대해서 적용되던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학회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근거로 한 경비 비용처리(손금 처리)는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번호	성 함	소 속	모금 날짜	입금 액	누적금액
1	오진록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0월 25일	10,000원	640,000원
2	염진섭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1월 1일	20,000원	1,150,000원
					현재 모금액 : 397,200,000원

▶ 기부금 고액 기부자 명단

1. 건축기금(단체)

번호	단체명	소 속	기부액
1	서울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서울대학교	50,000,000원
2	연세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연세대학교	50,000,000원
3	전남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전남대학교	30,000,000원
4	한양대학교 정형외과교실	한양대학교	30,000,000원
5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20,000,000원
6	대구파티마병원 정형외과	대구파티마병원	15,000,000원
7	전북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전북대학교	10,500,000원
8	고려대학교 정형외과교실	고려대학교	10,000,000원
9	제일정형외과	제일정형외과병원	10,000,000원
10	경상대학교 정형외과교실	경상대학병원	8,000,000원
11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	5,000,000원
12	한양대학교 정형외과 동문회(한정회)	한양대학교	5,000,000원

2. 건축기금(개인)

번호	성 함	소 속	기부액
1	박근호 회원	전주고려병원	24,000,000원
2	고용곤 회원	연세사랑병원	10,000,000원
3	김용욱 회원	라파메디앙스정형외과의원	10,000,000원
4	박종호 회원	부산센텀병원	10,000,000원
5	서동원 회원	바른세상병원	10,000,000원
6	신규철 회원	제일정형외과병원	10,000,000원
7	김기택 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7,200,000원
8	정영복 자문위원	현대병원	5,000,000원

3. 학회지 발전 기금

번호	성 함	소 속	기부액
1	이춘실 교수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20,000,000원



동양고전산책(東洋古典散策)

김인권 (한국 한센복지협회 회장)
(서울 예스병원 병원장)

三人成虎(삼인성호: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魏惠王(위혜왕)은 태자를 조나라 한단으로 인질로 보내며 龐恭(방공)에게 태자를 수행해 같이 가게 했다. 이때 방공이 왕에게 말했다.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않겠소.' 방공이 또 말하였다. '두 사람이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않겠소.' 방공이 다시 말하였다. '세 사람이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그러면 과인은 그것을 믿겠소.' 방공이 말하였다. '무릇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세 사람이 말하자 호랑이가 나타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한단은 우리 위나라 궁성에서 저잣거리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고 신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세 사람보다 많을 것이니 원컨대 왕께서는 이 점을 살피주십시오.' 그 후 방공은 인질에서 풀려 한단에서 돌아왔지만 끝내 왕이 만나 주지 않았다. 한비자 內儲說 上(내저설 상)에 나오는 글이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허황된 소문도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하면 믿게 된다는 것을 삼인성호라고 하고 위혜왕도 방공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방공은 위혜왕으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었다.

秦武王(진무왕)은 중원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얻기 위해 장군 甘茂(감무)에게 한나라 宜陽(의양)을 공격하게 하였다. 감무는 이미 촉을 정벌하고 한나라를 공격할 경우 위나라가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 위나라와의 화평을 성사시키고 息壤(식양)에 주둔하고 있었다. 무왕은 식양에까지 와서 감무를 위로하고 곧이어 한나라 의양을 공격하게 했다. 이에 감무는 '한나라 의양은 큰 현입니다. 상당과 남양으로부터 오랜 세월 이곳에 재물과 식량을 축적시켜 두고 있어 전쟁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왕께서 여러 곳의 험지를 넘어 천리 길을 가신다 하더라도 이곳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공자의 높은 제자로서 효도로 유명한 曾參(증삼)이 費(비)라는 곳에 살고 있었을 때 노나라 사람으로 증삼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살인을 하였습니니다. 어떤 사람이 증삼의 어머니에게 '증삼이 사람을 죽였소.' 하고 고했습니다. 그래도 증삼의 어머니는 태연하게 베만 짜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또 한 사람이 '증삼이 사람을 죽였소.'하고 알려 주었으나 어머니는 여전히 베만 짜고 있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다른 한 사람이 '증삼이 사람을 죽였소.' 하고 고하자 어머니는 베를 짜던 북을 집어던지고는 베틀에서 내려와 담을 넘어 현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증삼과 같은 어집과 그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자 그 어머니는 정말인가 싶어서 겁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어진 것은 증삼을 따를 수 없고 대왕께서 신을 믿으시는 정도는 증삼의 어머니가 증삼을 믿는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 신을 의심할 사람은 비단 세 사람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대왕께서 증삼의 어머니가 북을 내던지듯이 신을 의심하시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과인은 그와 같은 비방을 듣지 않겠다. 그대와 맹세하겠다.' 그리고 무왕은 드디어 감무를 시켜 군사를

이끌고 의양을 치게 했다. 의양의 방어는 견고했고 더욱이 초나라가 구원병을 보내 5개월이 지나도록 이기지 못하자 여러 사람들이 감무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무왕은 마음이 흔들려서 감무를 불러들이고 전쟁을 중지시키려 했다. 감무가 서신을 무왕에게 보냈다. '식양은 아직도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약속을 잊으셨습니까?'(息壤之誓) 이에 크게 깨달은 무왕은 오히려 군대를 더 보내 감무를 돕게 했다. (사기 저리자 감무열전)

췌(진)나라의 魏(위) 趙(조) 韓(한) 세 가문이 진나라를 나눠 각각 제후가 되었다. 그중 魏文侯(위문후)가 가장 어진 사람이었다. 여러 현명한 사람을 초빙하였고 그들을 스승으로 잘 공경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많은 인재들이 위나라로 모여 위나라는 강성해졌다.

췌(진)나라 북쪽에 中山國(중산국)이 있었다. 중산국은 진나라에 항복하고 해마다 진나라에 조공을 바쳤다. 그 후 진나라가 위 조 한 세 나라로 나눠져 어디를 섬겨야 할지 몰라 아무데도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더욱이 중산국 임금은 정치에 등한해 나라의 살림이 어렵고 백성들의 고초가 심하였다. 이에 위문후는 중산을 치기로 결심하고 樂羊(악양)을 대장으로 하여 군대를 보내려 하였다. 모든 신하들이 '악양의 아들 악서가 중산국에서 벼슬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양을 어찌 대장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하며 반대했다. 이에 위문후는 악양을 불러 물었다. 이에 '원래 대장부는 공을 세우고 업적을 남기며 각기 그 임금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어찌 공사를 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중산을 격파하지 못할 경우엔 군법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여 위문후는 악양을 대장으로 삼아 군대를 보냈다.

악양에게 포위당한 중산국에서는 몇 차례나 그 아들을 통해 악양을 포섭하려 했지만 악양은 군사를 물리지 않았다. 다만, 항복할 시간을 주기 위해 공격을 조금씩 늦춰 주었는데 이때 당연히 본국의 신하들은 악양이 아들 때문에 시간만 지체하고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참소하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중산국의 임금은 그 아들을 인질로 삼아 성위에 세워놓고 군사를 물리지 않으면 악양의 아들 악서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러나 악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활을 들어 아들을 겨누었다. 이런 방법이 효용이 없자 아들을 끌어내렸지만 결국 어찌하지 못하고, 다만 악양을 동요시킬 목적으로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삶아 국을 만들어 악양에게 보냈다. 그러면 악양이 슬픔에 넋을 잃고 전의를 상실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악양은 이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국을 전부 먹어버렸다. 그리고 국을 가져온 사자에게 '너희 임금이 국을 보내주어서 잘 먹었다. 중산성을 함락하는 날에 내 너희 임금을 직접 만나 감사하리라. 우선 너의 임금께 돌아가서 우리 군중에도 가마솔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라.' 이에 악양의 보복이 무서워 중산왕은 자살하고 중산국은 함락되어 위나라에 병탄되었다.

승리와 함께 귀환한 악양은 위 문후에게 많은 재물을 받았는데 동시에 봉해진 큰 상자 두 개를 받았다. 악양이 상자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전쟁 중에 대신들이 악양을 탄핵하는 상소문이 잔뜩 들어 있었다. 상소문은 전부 악양이 나라를 배반할 것이라 것과 그러니 속히 악양을 죽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악양은 중산국을 멸망시킨 것은 자신이 뛰어나서 만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해 준 위 문후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졌다.

나중에 진시황이 되는 진왕 정은 한 위 조 三晉(삼진)을 멸망시키고 다음으로 초나라를 치기로 하였다. 장군 李信(이신)에게 물었다. '장군이 초나라를 치려면 군사가 얼마나 필요하겠소?' '20만 명 만 있으면 초나라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 후 潁陽(영양)땅에 휴양하고 있는 노장 王翳(왕전)을 불러 물어봤다. '장군이 초나라를 치려면 어느 정도의 군사가 필요하겠소?' '이신이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초나라를 친다면 반드시 패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적어도 군사 60만 명은 있어야 초나라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진왕정은 속으로 생각했다. '왕전은 늙어서 겁이 많구나. 그렇다면 차라리 젊고 씩씩한 이신에게 이일을 맡겨야겠다.' 그러나 이신은 초나라 장군 項燕에게 크게 패하여 그동안 점령했던 초나라 땅까지 도로 빼앗겼다. 이에 진왕정은 왕전에게 다시 청한다. '지난날 장군이 말하기를 이신이 20만 명의 군사로 초나라를 치면 반드시 패하리라고 하더니 과연 우리 진나라 군사는 싸움에 패했소. 장군은 비록 늙었지만 과인을 위해서 초나라를 쳐주시오.' 왕전이 재배하고 사양한다. '노신은 이제 심신이 다 쇠약해졌습니다. 대왕께서 다른 유능한 장수를 골라 이 일을 맡기십시오.' '아니오. 이 일은 장군이 아니면 아무도 감당할 사람이 없소. 장군은 우리 진나라를 위해 싸워주시오.'

‘대왕께서 꼭 노신이 필요하시다면 적어도 군사 60만 명은 주셔야 초나라를 칠 수 있습니다.’ 60만의 대군은 진나라의 거의 모든 군사를 동원한 숫자여서 많이 망설였으나 결국은 왕전의 요구대로 허락하여 진왕 정은 친히 교외까지 나가서 주연을 베풀고 떠나는 60만 대군을 전송했다. 그 자리에서 대장 왕전이 술을 가득 부어 진왕 정에게 잔을 바치고 말한다. ‘대왕께서 이 잔을 받으십시오. 떠나는 이 자리에서 대왕께 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속에서 목록을 내놓았다. 그 목록엔 함양에서도 가장 좋은 밭과 저택들이 적혀있었다. ‘여기 적혀있는 밭과 저택을 신에게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이 초나라를 완전히 무찌르고 성공해서 돌아오면 과인은 장군과 함께 부귀를 누릴 작정이요, 장군은 장차 가난해 질까 봐 걱정할 것 없소.’ 마침내 왕전은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함양을 떠나 함곡관으로 나갔다. 대장 왕전은 함곡관을 지나면서 수하 아장을 불러 ‘그대는 곧 함양으로 돌아가서 대왕께 나의 말을 전하여라. 약간의 좋은 밭과 좋은 저택은 받았습시다만 기왕이면 좋은 동산과 연못이 있는 훌륭한 저택을 좀 더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나의 뜻을 아뢰어라.’ 부장 蒙武(몽무)가 대장 왕전에게 말한다. ‘노 장군께서는 대왕께 너무나 많은 것을 청하십니다 그려.’ 그제야 왕전은 빙그레 웃으며 부장 몽무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인다. ‘진왕은 성미가 사납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요, 이번에 왕은 나에게 60만이라는 대군을 내주었소. 지금 국내에 남아 있는 군대라고 단 한 명도 없소. 지금 진왕은 속으로 만일 60만 대군을 거느린 왕전이 반역이라도 하는 날이면 어찌나 하고 우리를 매우 의심하고 있는 중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자손을 위해 많은 요청을 하는 것은 바로 진왕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고 복잡하다. 그 관계를 매일 만나 조율하고 그때그때 서로의 오해를 풀고 이해를 한다면 모를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떨어져 있고 제 삼자가 끼어들면 관계가 소홀해지고 오해를 해소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병자호란 후에 청 태종에게 항복한 인조는 소현세자와 강빈 그리고 봉림대군 등을 인질로 청나라에 보냈다. 9년 만에 귀국한 소현세자에 대한 인조의 태도는 냉담했고 귀국 2달 만에 소현세자는 석연치 않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 얘기가 나돌게 되었다. 여러 사람의 말에 의해 서로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신뢰관계를 잃어버리느냐 아니면 여러 사람의 여론에도 신뢰관계를 유지하느냐는 당사자들의 현명한 사태 파악과 그에 대한 대처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방공은 위해왕의 오해를 풀지 못해 다시는 위해왕을 만나지 못했고 감무는 주위의 모함에 의한 진무왕의 오해를 옛 약속을 상기시켜 해결을 했으며 위문후는 자신의 현명함으로 주위의 많은 비난에도 악양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 또 왕전은 진왕 정에게 자신의 약점을 일부러 내 보여 의심할 여지를 없앨 수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告發使噓(고발사주)' '火天大有(화천대유)' '天火同人(천화동인)' 등 생소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달라 우둔한 국민들은 그 시비를 잘 가리기가 그리 쉽지 않다. 특히 화천대유는 주역의 64괘 중 가장 길한 괘의 하나로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란 뜻이고 천화동인은 '어떤 일을 두고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원하는 것을 이룬다'란 뜻이다. 사람들의 속성은 일이 잘 될 때는 힘을 합치지만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서로 비난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실과 그 이름이 뜻하는 바가 같지 않다면 좋은 뜻이 변색하여 이후에는 그 좋은 뜻의 이름이 좋지 않은 뜻으로 각인될 염려가 있다. 주역의 길한 괘인 천화동인과 화천대유가 앞으로는 불길한 괘로 각인될 것이 걱정이다. 이름을 좋게 지어 성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공의에 입각하여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런 일이 넘쳐나고(積善之家 必有餘慶:적선지가 필유여경),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넘쳐난다(積不善之家 必有餘殃:적불선지가 필유여앙)는 옛말을 상기시킬 필요도 없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현명해져야 하며 현명하게 사태 파악을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끈들의 여러 그럴듯한 얘기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겠다.

출간소식

1.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 -상하지 및 척추-

의사의 장애평가는 장애 판정에 결정적 근거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의사는 보상, 배상 또는 복지의 정도를 제어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적절한 장애평가 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발점입니다. 적절한 장애평가 방법이라는 것은 장애 종류와 정도를 잘 반영하고,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는 평가자의 시간과 노력으로 일정 수준의 일관성, 신뢰도와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평가의 대상인 장애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상존하고, 정의 및 범주는 사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측정이 어려우며, 장애평가 방법에 대하여서도 평가 규격의 자세한 정도와 평가자의 재량권 정도, 장애평가의 대상에 대한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각 방법에 대한 장, 단점이 있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이 현재의 국가적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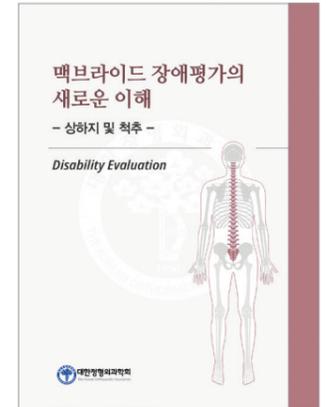
현재 우리가 사용중인 여러 종류의 국내법상 장애평가방법과 생명손해보험회사의 통합 후유장애등급은 100여 년 전의 장애 개념을 차용하여 현재의 의학적 수준과 차이가 있고, 장애분류의 등급 수와 항목들이 단순하고 세밀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들이 있으며 그 사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법원에서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법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왔고 여러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여러 단점과 한계 그리고 오류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새로운 평가방법의 제정은 지난한 일로 새로운 방법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사용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재에 사용 가능한 적절한 장애평가 방법을 제시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현재 법률적으로 인정되고 사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의 원칙과 기준을 유지하면서, 사지 및 척추 분야에 대하여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고 현재의 발전된 의학적 수준에 비추어 새로이 해석하고, 부족한 시행세칙을 자세히 하여 평가자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2년의 기간에 걸쳐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하여 그 내용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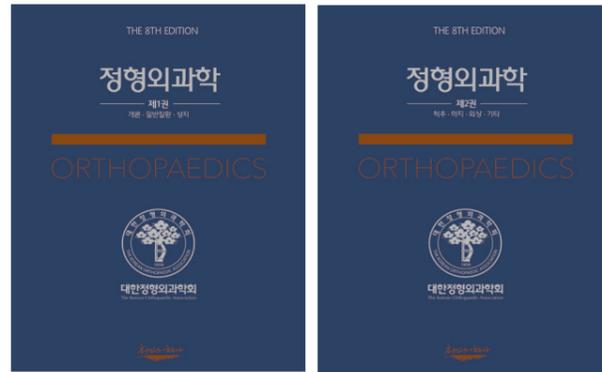
아직도 미비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곳이 있으리라 생각되나, 장애평가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가 그 한 원인이며 현재로는 전문가 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 최선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이번 발간물은 2년간의 논의의 결과물입니다. 장애평가를 하시려는 분께서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참작하여 의료 전문가로서 피감정인의 장애 상태를 가장 적절히 평가하는데 적용과 준용의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적절한 장애평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장애평가 개정 TF 위원회, 진단 및 장애위원회 위원장 이 순 혁

- 판매처 : 대한정형외과학회 (Tel. 02-780-2765, Fax. 02-780-2767, E-mail. ortho5@koa.or.kr)
- 가격 : 70,000원 (회원가 3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대한정형외과학회)



2. 제8판 개정판 정형외과학 교과서 발간



• 구입 : 최신의학사(Tel. 02-2263-4723) • 가격 : 360,000원

제8판은 정형외과학 전문적인 최신 지견을 담고 도표와 증례 또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제7판에 비해 20% 이상 증가된 218페이지로 제8판 정형외과학은 전공의 및 근골격학을 공부하는 의료인들에게 풍성하고 업데이트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정형외과학 용어집 제3판



•가 격 : 50,000원
•구입문의 : ortho@ko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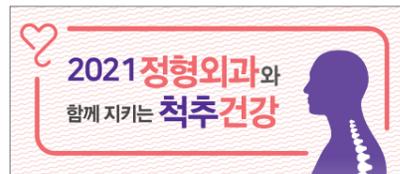
4. 「장애판정기준」 - 사지및척추분야 제2판 -2012년 발간



•가 격 : 회원 15,000원 / 비회원 30,000원
•구입문의 : ortho@koa.or.kr

대한정형외과학회 캠페인 안내

| 2021년도 건강 슬로건 |



과잉진료 및 허위진단서 근절 캠페인 포스터가 필요하신 분은 학회 이메일(ortho@koa.or.kr)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A4사이즈)

| 허위진단서 근절 캠페인 포스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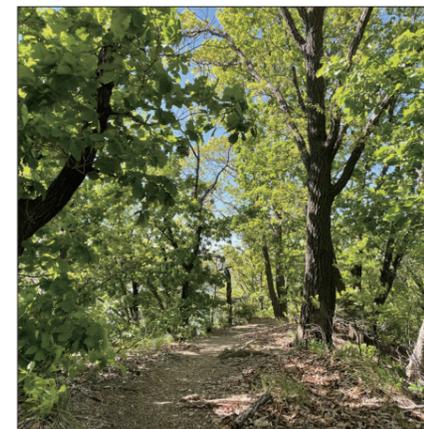


2021년도 본 학회 건강 슬로건은 "2021 정형외과와 함께 지키는 척추건강"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성공개원! TJ 메디컬빌딩에서 시작하십시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숲
바로 교통의 요지에
여러분이 찾는 병원이 있습니다.

방배역 도보 5분 거리



이 곳에 우뚝 서십시오!

- 넓고 편리한 주차공간
- 환자들이 몰리는 TJ메디칼 빌딩
- 방배근린공원이 정원입니다.
- 다양한 교통, 의료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성공이 뛰는 곳에서 기다립니다.



daewon
대원제약

골관절염 치료, 신바로정과 펠루비CR로 시작하세요!

국내 최초 '외상 후 동통' 치료효과 입증!
급성 염좌, 기타 연조직 장애에도 처방 가능합니다.



신비 웹심포지엄

www.dw-shinbi.com | 사전등록 & 심포지엄 접속 URL

1차

일시 : 2021년 11월 17일(수)
주제 : Intra-articular treatment options for knee OA

2차

일시 : 2021년 12월 15일(수)
주제 : Medical treatment of OA



이 행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QR코드를 통하여 사전등록 및 시청이 가능합니다.

